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노아의 홍수 (15) 보이는 것에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 이재만 2쪽
2. Articles (5) 진화론 - 영성에 대한 궁극적 해독제? - 이종현 역 4쪽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23) 생명발생의 비밀 - 김경태 6쪽
4. 참 아름다워라! (40) 창세기 대홍수와 길가메쉬 서사시 - 창조과학회 8쪽

인사말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참신한(자유주의 내지는 진보주의)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는 노신학 교수의 “창조 과학”과 “지적 설계”는 사이비 과학이므로 과학의 범주에서 빼내어야 한다는 자칭 “진화론적 유신론”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스팔트도 녹여버리는 8월의 열기에 더해 나의 몸이 한층 더 뜨겁게 달구어 짐을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 중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나면, 그 노 신학자나 창조 과학에 관한 나의 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모두 냉정한 입장이 되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행함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우수한 젊은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성장하면서 세상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기도하면서...

대구의 무시무시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지가 독자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김 경 찬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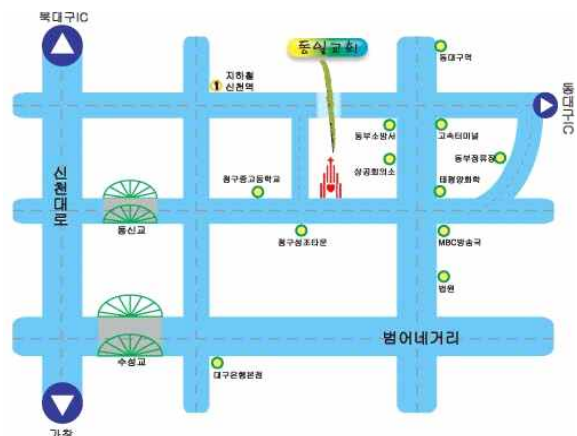
일시: 2008년 9월 4일(목)

장소: 동일교회 복음센터 306호

☎ (053) 743-6058

내용: The Book of Genesis

(by Chuck Missler)



보이는 것에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I)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즉 하나님, 사탄, 이웃, 자연(피조물)에 대하여 성경은 이들 대상을 각각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섬겨야 할, 사탄은 거절해야 할, 이웃은 사랑해야 할, 피조물은 다스릴 대상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때 나와 주위 대상들의 올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진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다. 진화론의 바로 궁극적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기원에 관하여 생각해 보니 보이는 것에서부터 변하여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을 때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바뀌버린 사탄의 영적 침투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동등한 우주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는 보이는 것 가운데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같이 여기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필자가 창조과학 프로그램 중에 가끔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질문이라고 전제해 놓고 '태양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죽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과학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면 한참 후에 자신들의 대답이 질문자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인지 억지로 '살아요' 답변한다.

우리는 태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는 태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양 말고 다른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시며, 아무것도 없더라도 직접 보호하실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선택의 여지없이 보이는 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일월성신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두렵건데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신 4:19)

"And beware not to lift up your eyes to heaven and see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all the host of heaven, and be drawn away and worship them and serve them, those which the LORD your God has allotted to all the peoples under the whole heaven. - Deuteronomy 4:19, NASB

태양과 달과 보이는 피조물이 완벽한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경이로운 것이 아니다. 완벽한 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다. 그런데 그 완벽한 분이 빠지면 보이는 것 자체에 신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배할 것을 그들에게 예배됨을 너무 뻔히 알고 계신 것이다.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인 시편 121편을 보아도 분명한 관계를 알 수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산을 보았지만 산뿐 아니라 산을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낮의 해나 밤의 달도 자신을 해칠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다.

*I will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From where shall my help com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He will not allow your foot to slip; He who keeps you will not slumber.
Behold, He who keeps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The LORD is your keeper; The LORD is your shade on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smite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all evil; He will keep your soul.
The LORD will guard your going out and your coming in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 - Psalms 121:1-8, NASB*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고백이 아닐까?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확신은 복음을 포함하여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에도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출처: <http://kacr.or.kr/library/itemview.asp?no=2252¶m=type=C&authorname=이재만> **창조**

진화론 - 영성에 대한 궁극적 해독제? (Evolution - the ultimate antidote to spirituality)

세상의 주요한 철학 가운데 어떤 것이 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가?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 이슬람도 아니다. 또한 명백히 유대교나 기독교도 아니다. 그리고 호주 토착 영성과 같은 물활론적 종교도 아니다. 더욱이, 불가지론도 아닌 것은, 그것이 최소한 영적인 실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답은 **무신론**이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사람 및 사람의 영성에 관한 개념이 어디에서 왔다고 설명하는가? 물론, ‘진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진화했을 때 영적 실체에 관한 개념도 같이 진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실질적인** 영적 실체는 없다고 말한다. 즉, 그것은 신자들을 속여서 영적인 실체가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 실체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간단하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한다. 영성이 진화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몇 가지 생존의 장점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살인, 간통, 근친상간 등에 대해 ‘법률’과 ‘금기’를 제공함으로써 그것들이 개인과 단체를 도와서 그들의 유전자를 다음세대에게 보다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도왔다.

이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사람들은 진화론이 철학에 있어서 영성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백히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다. 거기에 대해 어떤 모순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God is spirit)고 말하며(요한복음 4:24), 반면에 진화에서는(선두적인 지지자들이 이해하듯이) 영적인 실체가 **없고**(그것은 마음의 착각이다), 악한 영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고** 말한다.

명백히,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실제로 말하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진화론 교과서가 실제로 가르치는 것을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혹은 그 둘 다에 대해 무지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진화론 전문가들에게 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코넬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윌 프로바인(Will Provine) 같은 사람이 최고급 수준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현대 진화론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든다. 사람들은 진화론에 부합하는 종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종교적 관점이 무신론과 일치할 때에 한한다.

또한, 전 UNESCO 총재였으며 진화론을 선도하는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 경(‘다윈의 증견’이었던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의 말을 생각해 보라. 그는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에서는 더 이상 초자연적 존재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여지도 없다.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다: 진화되었다. 따라서 그 안에 거주하는 동물과 식물 모두도 그러한데, 거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마음과 혼 및 뇌와 신체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종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진화론은 영적 실체가 **실제적**이라는 데에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인지적**인 것으로 본다.

실체 - 진화론에 대한 위대한 해독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때로는 물질적 설명을 부정하고 초자연적 설명을 강력하게 가리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완강한 진화론자가, 영적인 실체의 실재에 강제적으로 맞부딪쳐서, 기독교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과거에 무신론자였던 한 사람이 이런 전환을 이끈 사건에 대해 썼다:

“나는 점점 불길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더 이상 물질주의를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 ... 나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영적인 전쟁을 목격하고 있었다. ... 이제 나는 ‘나쁜 놈들’(bad guys)이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선한 사람들’(good guy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했다.

사실이 그러하다.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도 진화론적인 설명을 부정한다. 중산층(혹은 심지어 부유층)의 학력 있는 사람들이 비싼 조종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여객기를 납치해서 그것을 몰고 큰 건물을 들이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논리가 없다. 혹은 사람들이 폭탄을 자기 몸에 매고 군중이 많은 시장이나 기차 및 버스에 돌진하여 자폭하는 이유도 그렇다. 그러한 파괴에는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논리가 없다.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해서 보다 많은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파괴자라고 불리는 악한 천사(원래는 ‘매우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했다)가 있고, 행동으로 단 한 분이신 진정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실감을 하든 안하든 **파괴자**와 동일 선상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누가복음 11:23).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반대하는가? **참조**



생명발생의 비밀

얼마 전 내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떡을 가져 왔다. 최근에 딸을 낳아 기뻐하던 학생인데 태어난 지 벌써 100일이 되었다며 떡을 해서 자축하며 연구실의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 가져왔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고 잘 생겼으니까 딸도 키가 크고 예쁘게 자랄 것이고, 공부와 연구에 열심인 아빠를 닮아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 나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 될 것이라는 덕담을 서로 나누었다.

한 청년과 처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애기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경이로움을 느낀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하기까지 사람의 경우 266일간 38주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란다. 단 한 개의 수정란 세포에서부터 출발하여 60-70조개의 세포를 가진 온전한 개체로 될 때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발생해야 한다. 처음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있던 침체로부터 효소들이 쏟아져 나와 난자의 젤리 막을 녹인다. 그러면 젤리 막에 구멍이 생기고 그 아래 비텔린(Vitelline) 막이 드러나게 된다. 비텔린 막에는 정자가 결합할 수 있는 중 특이적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 수용체에 정자의 표면에 있던 단백질이 결합을 하고, 이어서 정자와 난자의 원형질막끼리 융합하게 되면, 정자의 핵이 난자로 들어가 난자의 핵과 합쳐서 수정란이 되는 것이다. 이때 2-5억 개의 정자 세포 중에 가장 먼저 난자에 도달한 정자가 난자와 융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도달한 정자가 난자와 만나게 되면 난자의 원형질막의 전위가 탈분극이 되는 전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정자와 융합한 후에는 난자의 원형질막과 비텔린 막의 간격이 벌어지며 이 간격에 수액이 차고, 난자로부터 여러 단백질들이 분비되어 비텔린 막의 성질을 변화시켜 수정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난자가 최초의 정자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전기적 변화와 아울러 이어서 만들어지는 수정막 형성과 같은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남으로, 뒤늦게 도착한 정자는 난자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2n$ 이 되는 이배체 수정란 세포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난자는 여러 정자와 수정하게 되어 염색체 수가 너무 많은 비정상적인 수정란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체발생을 기대할 수 없다. 수정은 나팔관이라고도 부르는 자궁 관에서 일어나는데 수정되고 나서 24시간 후부터 세포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수정란은 자궁 관의 섬모활동에 의해 서서히 자궁 쪽으로 옮겨 간다. 1주일 정도 지나면 100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구형의 포배가 형성되고 자궁에 도착하면서 자궁내벽에 착상을 시도한다.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에서 자라지 못하고 좁은 자궁관내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궁외임신이 되어 산모가 위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궁에 도착하여 제대로 착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이 되고 만다.

수정란이 포배가 되고 나면 세포의 대이동이 일어나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3개의 세포층이 형성되는 낭배가 만들어지고, 외배엽으로부터 신경관이 생기며 이것이 신경관을 거쳐 신경계로 발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배엽은 피부와 눈의 각막이나 수정체 등으로 분화되고 중배엽은 뼈대나 근육, 순환기, 생식기 등으로 발달한다. 내배엽은 간이나 췌장 등 내부 장기로 발달하게 되면서 각 세포층이 적절한 기관형성을 하게 된다. 개체가 발생하면서 각 기관이 이루어지고 형태를 갖추게 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발달하는 목표지점에서 분비되는 화학 신호에 따라 세포가 이동하고, 또한 적절한 때에 스스로 세포가 죽어 버리는 예정된 세포의 죽음도 일어난다. 그리고 조직과 기관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세포군이 가까운 다른 세포군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도 작용이 있고, 분화된 조직과 기관들이 자기 자리에 있게 하는 패턴형성의 과정을 가진다. 패턴 형성이 잘못되면 팔이 가슴에 붙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일련의 발생 과정을 통해 수정이 된 후 9주가 되면 태아의 팔 다리가 움직이고 손가락을 뻗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그리고 20주가 되면 얼굴에 눈썹이 생기고 손톱 및 발톱이 생기고 30주가 지나면 태아의 눈이 떠지고 치아도 만들어진다.

건강한 아기로 출산되기까지 끊임없이 필요한 물질들의 합성이 일어나야 하고 세포의 분열과 이동, 분화, 발달이 적절한 때에 알맞게 일어나야 한다.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생 과정 중에 조금의 실수만 있더라도 기형이나 장애를 가지게 된다. 발생단계를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복잡 할뿐만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메커니즘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관찰되고 연구된 결과만을 보더라도, 각 발생과정에서 필요한 때에 정확하고도 정밀한 반응이 일어나야 함을 알 수 있고 이 일들이 저절로 우연히 된다고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세밀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세포들 간에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완전한 개체로 발생토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를 성취하셨다.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하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참조**

창세기 대홍수와 길가메쉬 서사시 (Genesis Flood vs Epic of Gilgamesh)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의 대홍수 사건이 바벨론 설화에서 따 온 하나의 설화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서 공통점을 가진 이야기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사건은 전 세계에 설화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단지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극지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호에서는 창세기의 대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전설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 아니라 이집트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의 고어, 태평양 여러 민족들의 민담, 남북아메리카 원주민, 호주 뉴질랜드 마오리족, 중국 및 유럽 토착민들 등 모든 고대문명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부족에 270개 혹은 그 이상의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홍수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신이 물로 심판을 했다는 것과 다 자신의 조상만이 살아남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벨론의 ‘길가메쉬 서사시’에는 노아의 대홍수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앗수르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가메쉬 서사시’의 서판은 열한 번째 서판으로 1873년 니스웨의 아쉬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다른 전설들과 마찬가지로 배를 건조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실으라고 명령받은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너비와 폭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라. (중략) 방주의 바닥면적은 1에이커(1224평, 32평 아파트를 38채 붙여놓은 것, $63.6\text{m} \times 63.6\text{m} = 4047\text{m}^2$)--축구장 크기 가로 105m, 세로 68m--였고 각각 벽의 높이는 120큐빗(1큐빗은 성인남자의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45-50cm로 추정되고 있다)이었으며 사각형 갑판의 각 변들은 120큐빗이었다.

(중략) 가축과 야생 짐승들이 그 배로 들어온 후 그 문이 닫혔다. 그 후 번개, 천둥, 지진, 지하수의 분출과 어둠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마침내 그 폭풍이 가라앉고 배가 땅에 닿았다. 그 사람은 한 마리 비둘기와 한 마리 제비 그리고 한 마리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었다. 그 후 그는 배에서 나와 희생제물을 드렸고, 신들은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내주었다.’

마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사건과 꽤 유사해서 이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성경이 베낀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방주의 크기에 대한 언급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처럼 방주의 너비와 폭이 같은 길이일 경우 현대 조선 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배의 기본적인 안정성 중의 파랑안정성의 경우에 실제로 파도가 와서 방주의 측면이나 후면을 치게 될 때 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되어 방주 안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설화에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바벨론 설화에서 변질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창세기의 대홍수 기록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홍수 전설 중에 목도령전설이 있는데, 큰 홍수가 났을 때, 참나무의 아들로 태어난 목도령(나무도령)이 아버지나무를 타고 안전하게 떠내려가다가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구하여 그들이 자손을 퍼트린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 전설에서는 땅위동물(개미와 뱀)과 공중동물(모기)과 산중동물(여우)과 인간을 구해주었는데, 후에 인간만이 배은망덕하여 머리 검은 짐승(인간)은 구해 주지 말라’ 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한다네요.^.^;;

창조퀴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호에서 말씀드린 서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